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 조국 사태 사과 · 지소미아 종료 유예 잘했다

지난 19일 오후 8시, MBC 스튜디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100분 간 가졌다. 1만6천명의 신청자가 몰려서 국민대표로 300명을 뽑고, 300명 중에서 17명이 질문을 했는데 4명이 전에도 출연했던 구면(舊面)이었다고 한다.

국민과의 대화에 대하여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역사상 대통령이 각본 없이 대화를 한 적이 없었다. 대통령이 성실하게 답변하는 자세는 굉장히 진솔했다'고 호평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통령 팬미팅 같은 '국민과의 대화'는 문재인 정부의 소통 능력을 그대로 보여준 실망스러운 시간이었다. 불안과 걱정을 주는 진부하고 답답한 쇼였다'고 혹평했다.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산만하고 미흡한 점은 있으나, 안한 것보다는 백 번 나은 일이다. 11월 9일,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서 2년 6개월의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묻고 듣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좋게

평가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 가진 기자들과의 각본 없는 간담회는 아직 시기 상조(尙早)인 것 같다.

나는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하여 '국민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국민을 분열로 갈라지게 한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는 문 대통령의 깨끗한 사과를 높게 평가한다.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하기 어려운 명쾌한 사과였다. 8월 9일, 조국(曹國)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민의 입명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9월 9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고 10월 14일 사퇴하기까지 국론은 격렬하게 분열되고 대립되었다.

'조국 수호'를 외치는 보수 진영의 광화문광장 집회와 '조국 구속'을 외치는 진보 진영의 서초동 집회를 매주 토요일 대규모로 열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서 극한 대결을 벌였다. 총(銃) 만 안 든 내란(內亂) 상태 같았다. 지금도 상식과 공정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기 보다는 진영(陣營) 논리로 바라보는 이성을 잃은 듯한 비합리적인 지지자들이 많

아서 조국 사태의 불씨는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 어렵다. '조국 전횡'에서 밀리면 총선에서 지고 정권이 끝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 그러나 앞으로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은 2년 6개월이나 남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해야 할 막중한 정치적·법적 책임과 의무가 놓여 있다.

11월 22일,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종료 조항을 조건부로 유예(猶豫)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등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한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의미다.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정지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결정은 7월 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 만이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 상 우

방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 만이고, 8월 2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부터 3개월 만이다. 우리는 통일이 되면 몰라도, 아직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나 러시아와 맞짱을 뜰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잘 했다고 본다.

지난 23일, 24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에 대해 "잘한 결정" 70.7%, "잘못한 결정" 17.5%로 나타났다.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지나친 요구이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83.2%, '한미동맹 고려해 미국 요구 수용해야' 11.4%, '모름·무응답' 5.4%다. 여론조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책 결정에 참고해야 할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동북아 정세는 크게 보아 북·중·러 세력과 한·미·일 세력 간의 경쟁과 대결 구도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 국가 간 국익우선 주의의 충돌,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일 간의 역사 및 징용배상, 남북 간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교류 협력사업 확대와 제재 해제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과감하게 인정하고 고쳐나가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종합적이고 최선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기대한다.

## 社 說

### 겨울 캠핑장 사고 막아야

겨울철이면 반복되는 캠핑 질식 사고가 올해도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울산시 동구 한 캠핑장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40대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을 발견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발견 당시 텐트는 완전히 닫혀 있었고, 안에는 숯이 탄 화덕이 놓여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저녁 식사 때 숯 화덕을 사용한 뒤 텐트 안에 넣어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검안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두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캠핑장 질식사 사고는 잇달면 발생하고 있다.

이달 9일 경북 봉화군 한 캠핑장 텐트에서 50대 2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텐트 안에는 숯불이 꺼지지 않은 채 출입문도 모두 닫힌 상태였다. 지난

해 10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선 80대 아버지와 50대 두 아들이 캠핑카에 불을 피우고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같은 달 광주시 북구 영산강 인근 다리 밑에서도 텐트 안에 부탄가스로 작동하는 온수 매트를 켜고 자던 부부가 숨졌다. 앞서 2017년 11월에는 경기도 이천과 양평을 통해 이들을 발견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발견 당시 텐트는 완전히 닫혀 있었고, 안에는 숯이 탄 화덕이 놓여있었다. 캠핑카나 텐트에서 화덕이나 가스 등을 이용한 난방기기를 사용하면 좁은 공간에서 산소가 연소하고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부터 글램핑 등 사업자가 설치해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개인 텐트나 캠핑 카를 이용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휴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겨울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가을철 산악사고 예방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울긋불긋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남과 동시에 산악사고도 늘어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을철 사고가 전체 산악사고의 30%로 가장 많다. 가을 등산에 앞서 산악 사고 방지와 예방의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일찍 출발해 일찍 하산하자. 가을로 접어들면서 일몰시간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산

속에선 어둠이 일찍 찾아와 시계가 불량해지면서 조난을 당할 위험도가 높아진다. 산행 전 일몰시간을 미리 알아 두고 그전에 하산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산행코스 미리 숙지하기. 등산 전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는 산을 선택해야 한다. 등산 코스를 미리 확인해 입산 통제 구역으로 빠지거나 길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셋째, 등산

전 준비운동 하기. 준비운동 없이 바로 산행을 하게 되면 몸의 근육이 놀라 자칫 위험할 수 있다. 등산 전에 발목 무릎 등을 중심으로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서 몸의 근육을 풀어 주어야 한다. 넷째, 비상약품, 비상식량 챙기기. 긴급 상황에 간단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밴드, 소독약 등 응급처치 약품을 구비해야 하며, 산행 중 체력이 소진 되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열량이 높은 비상식량(초코바, 사탕 등)을 챙겨가야 한다. 다섯째, 휴대전화와 보조배터리 챙기기. 산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는 생명줄과 같다. 등산로 주변 곳곳에 설치된 119구조위치 표시판 반로를 숙지해 두어, 위급상황 시 119에 신고하여 사고 위치를 정확히 알려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되길 바란다.

배병희 / 화순119안전센터 소방사

등록번호 광주가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체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